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7년 7월 31일, 매 수 : 총 매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 [redacted]

-(주)여성신문사: [redacted]

여성표심으로 본 대선세미나

"여성이 묻는다, 준비되셨습니까?"

공동주최 :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조은희)
(주)여성신문사 (대표이사 김효선)

7월 31일 화요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선사상 최초로, '각 당 경선후보'를 대상으로 '여성' 분야 정책검증을 실시합니다.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조은희)'와 '(주)여성신문사(대표이사 김효선)'가 공동주최하는 2007 대선을 향한 여성계 첫 행사인 <여성표심으로 본 대선세미나 "여성이 묻는다, 준비되셨습니까?">엔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회장 등 주요 여성단체장 6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박근혜, 손학규, 심상정, 이명박, 정동영, 추미애, 한명숙 후보(이상 가나다순, 최근 지지율 5% 이상 후보와 여성후보 포함) 등 여성정책 검증 대상이 된 후보들이 대거 참석, 여성유권자들과 여성단체장들 앞에서 "여성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란 다짐서약서에 서명하는 특별 순서도 마련돼 있습니다.

I. 세미나 주요내용:대선후보들, 여성경제활동을 60%, 여성일자리 100만개, 여성각료 30~50% 공약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여론조사...양성평등 평균점수 10점 만점에 6.14
/ 희망 여성각료 수 7.3명/ 여성정치할당제 71.2% 찬성"

각 대선후보들의 답변에 근거해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될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윤곽과 후보별 주요 여성공약이 도출됨으로써 세미나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이에 따르면, 7명의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여성경제참여율 60% 이상, 여성일자리 100만개 이상, 여성각료 30~50% 증가를 공약했고,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국가산점제 부활, 여성가족부 통폐합 혹은 폐지, 초중등교 남교사 할당제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후보별로 적극 반대/ 유보/ 조율 등의 입장 차이가 났습니다.

각 후보들의 여성공약은 공통적으로 여성일자리 창출과 보육정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그 지원정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성평등 실현을 꿈은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또한 지난 97, 2002 대선에 비해 '여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후보들의 의식과 태도가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디 오피니언(소장 안부근)의 심층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의 여성 관련 이슈를 설문조사 한 결과, '여성정책을 가장 잘 해결할 대선주자'는 박근혜 후보(59.1%), 다음은 한명숙 후보(11.5%)/ '부동산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대선주자'는 이명박 후보(34.5%)/ '교육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대선주자'는 박근혜 후보(33.9%), 다음은 이명박 후보(17.6%), 손학규 후보(11.4%)/ '여성일자리 창출을 가장 잘 해결할 대선주자'는 박근혜 후보(54.6%), 다음은 이명박 후보(15.7%), 한명숙 후보(7.4%)/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대선주자'로 이명박 후보(30.9%), 다음은 박근혜 후보(18.3%), 손학규 후보(11.2%)가 꼽혔습니다. 각 후보별 차이는 다소 있지만, 유권자들이 대체적으로 사안보다는 지지도에 따라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또한 각 후보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6.14점, 여성정책 관심도 1위는 남녀 모두 여성일자리 창출(43.3%),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 가치는 146만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점수에 관해선 여성, 50세 이상, 기혼에서 양성평등 수준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정책 관심도 우선 순위에서도 남성은 영유아 보육정책, 여성은 부부평등재산권이라는 점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통폐합 사안에 대해선 "고유 업무가 있으므로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5.4%로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지 의견은 11.9%에 불과한 반면, 성별로는 여성은 '존속' 의견이 많고, 남성은 '존속'과 '폐지'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고, 19~29세 층에선 "다른 부처와 함께 확대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정한 여성각료의 수'는 현재 18명 각료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7.3'명이 꼽혔고, '여성정치할당제'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1.2%가 찬성했습니다.

주최측인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신문사는 세미나에서 중점 논의되는 여성계 이슈들과 수렴된 의견들을 모두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 이후 공약 발표 과정에서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후 후속작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II. 세미나 구성과 진행: 역대 대선사상 처음으로 경선후보 여성정책 · 여성마인드 검증 박근혜 손학규 심상정 이명박 정동영 추미애 한명숙 대상

이번 세미나는 대선 사상 최초로 본선이 아닌 경선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각 당의 후보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정책 검증 대상이 된 7명의 후보들에게 '여성' 관점에서 다양한 질의들을 담은 총 12문항(세부문항 포함 21문항)에 대해 답변서를 받아 이를 다시 전문가 집단이 분석하여 발제하고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발표됩니다.

세미나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대선후보들의 시대 정신과 양성평등 철학(김형준 명지대교수)', '여성가족부 폐지, 초·중교 남교사 할당제, 여성각료 임명 의지' 등 첨예한 여성이슈에 대한 각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통해 분석한 '대선후보들의 여성공약 · 정책분석(박명순 경인여대 교수)', 그리고 경선후보별 지지자별 여성정책 선호도를 따로 조사해 각 후보 지지자 간의 여성정책 차이점을 분석해낸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조은희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발표로 구성됩니다. 지정 종합토론자로 신연숙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이 나서며, 이밖에 참석한 주요 여성단체장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첨부: 1. 세미나 진행 순서

2. 3개 발제문('대선후보들의 시대 정신과 양성평등 철학(김형준 명지대교수)')

'대선후보들의 여성공약 · 정책분석(박명순 경인여대 교수)'

'전국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조은희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자료집

*세미나 진행 순서

-1부 : 식전행사

- 개회, 인사와 축사, 내빈 소개
- 특별순서 <7명 대선후보들의 '여성 위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 다짐 선서>

-2부 : 발제 및 종합토론

- '대선후보들의 시대정신과 양성평등 철학':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 '대선후보들의 여성정책과 공약 분석': 박명순 경인여대 교수(유아교육학)
- '1,000명 여론조사, 여성표심과 대선후보': 조은희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장

<세미나 담당 부서 및 담당자>

- 이은경 (주)여성신문2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 이민정 양성평등실현연합 사무국장

(

3626
0927-9801618 8.82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님께
감 사 드 립 니 다

안녕하세요? 여성신문사 ·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성신문사와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여성표심으로 본 대선 세미나- 여성이 묻는다, 준비되었습니다?'에 참석해주시고 경청해주시고, 또 진지한 관심을 표해주신 것에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계를 대변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선 진저한 문제의식과 함께 탄탄한 전문성과 진정성이 태어있는 토론으로 이번 대선 세미나를 한층 빛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세미나에 참석한 심상정 · 정동영 · 추미애 · 한명숙 대선 예비후보와 관계자, 그리고 각 언론매체에 경선 과정에서 부터 대선을 거쳐 새정부 출범에 이르기까지 여성공약과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위해 준비된 대통령후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이번 대선 세미나는 연이어 이어질 여성계의 대선 세미나의 구성과 진행에 새로운 지표를 제공하며 앞으로의 대선 정국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각 대선 후보 진영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단초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대선 세미나가 이렇게 큰 울림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 신경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2007. 8. 1.
여성신문사 ·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정책연구소 拜上